

전남대병원, 현 위치에 '스마트 병원' 짓는다

학동 의대·간호대 헬고 900병상... 1~3동 자리 600병상
경제성·접근성·산업인프라 등 고려 최적으로 판단
부지 무상 공여 등 혁신 대안 있으면 재검토 가능성도

전남대병원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최첨단 병원으로 거듭날 '새 병원'을 현 위치에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새 병원은 전남대 학동캠퍼스인 의대·간호대 건물을 허문 자리에 900병상, 병원 1~3동 부지에 새롭게 600병상을 갖춘 총 1500병상 규모의 스마트 병원으로 건립된다. 특히 현재 환자 수요와 미래 감염병을 대비해 병원 1동별관(장례식장) 자리에 심뇌혈관센터, 7동에는 감염병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대병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새병원건립추진단의 이 같은 결정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건립추진단은 새병원 부지 선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와 경제성·접근성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총 18차례의 회의 끝에 전남대 학동캠퍼스 부지에 새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다만 안영근 병원장은 "새병원 부지선정은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동시에 지역사회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인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한다. 지금은 계획 단계인 만큼 부지 무상 공여와 같은 대안이 추가로 제시되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혀 재검토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추진단의 집중 검토 사항 중 접근성 부문에 있어서는 향후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완료되면 1·2호선이 함께 통과하게 되고, 시내버스 등 다수의 대중교통 노선이 경유하는 교통요지라는 점이 가장 큰 결정요인이 됐다.

더불어 현 전남대병원의 지리적 위치가 광주지역의 중심부이자 나주·화순·담양·장성 등 전남도 주요 시군과 근접해 있어, 황금시간대에 치료해야 하는 응급환자들을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경제적인 부문에서는 현재 화순으로 옮긴 전남대 의과대학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타 지역 이전에 따른 부지 구입비 등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다, 막대한 추가비용이 발생되면 자칫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부지를 확보할 경우 현재의 병원 건물과의 연계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음은 산업인프라 여건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미래형 공공의료서비스를 설계하는데 있어 주변에 의료기관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의료발전을 이끌 수 있는 혁신적인 의료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는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2018년 지역민과 전남대의대 동문·전남대병원 직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자료를 참고했으며, 당시 조사결과는 답변자의 67%가 현 위치가 적당하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새병원 사업이 현재의 일정대로 추진되면 내년 4월께 예비타당성 사업 신청을 거쳐 2023년 예비타당성 사업 최종 통과를 목표로 진행하고, 자원마련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10년 내 새 병원의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이웃이 이웃에게...1억8000만원 상당 기부 마스크 16일 광주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동장에서 북구청 복지정책과 직원들이 기탁 받은 1억 8000만원 상당의 덴탈마스크 450만장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행정복지센터로 옮기기 위해 차장에 싣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타이거즈 전설' 들 충장축제 온다

동구, 김응룡 감독 등 우승 멤버 토크쇼·팬사인회 준비

프로야구 첫 우승을 차지했던 1983년 해태 타이거즈의 영웅들이 충장축제에 다시 광주를 찾아 온다.

16일 동구에 따르면 1983년 대한민국 야구의 새 역사를 썼던 '전설의 타이거즈' 주인공들이 '제18회 추억의 충장축제'에서 모이는 '어게인 1983 타이거즈' 행사가 열린다.

충장축제 둘째날인 오는 19일 '전설의 귀환 선수 토크쇼'가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토크쇼에는 1983 프로야구 우승 주역인 김응룡 전 감독을 비롯해 김봉연, 김준환, 김일권, 김성환, 김종모, 이상윤, 방수원 선수까지 당시 우승 멤버들이 출연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들려준다.

이어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5·18민주광장 주무대에서 타이거즈 전설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팬 사인회가 열린다.

전설의 타이거즈 멤버들은 이날 오후 2시에는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지는 '시민환영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오후 3시 5·18민주광장 주무대에서 열리는 환영회를 통해 팬들과의 만남을 갖고 1983년 그 시절을 회고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용기를 줄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1983년 어둠과 암울했던 그 시절 대한민국 프로야구의 역사를 기록했던 그때 주인공들이 올해 충장축제에서 귀환한다"면서 "당시 호남의 구심점이자 큰 위로를 주었던 선수들이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제18회 추억의 충장축제'에서 행사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사이버 스타프 투어를 즐길 수 있는 증강현실(AR) 애플리케이션 '충장축제 AR'을 출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일상 회복 위한 정부예산 편성을"

광주시 구청장협의회, 소상공인 지원·전국민 상생지원금 지급 등 요구

광주시 5개 자치구 정장들이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정부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광주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광주자치구 5개 구정장은 성명을 내고,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구청장들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유로 2021년도 558조원 보다 8.3%가 증액된 60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 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청장들은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발행 지원예산을 3조 원으로 증액 ▲제5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국민의 12%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지방정부가 먼저 집행한 예산 보전 ▲일상회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을 지급 등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日 강점기~80년 5월' 청소년 역사투어

광주 남구, 20·27일 광주공원 일원

광주시 남구가 청소년들에게 남구의 민주인권 역사를 알리고,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이달 말 2차례에 걸쳐 일제 강점기부터 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을 되돌아보는 '민주인권 역사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0일과 27일에 광주공원 일원에서 2021년 민주인권 역사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포함한

가족 40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정몽진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학술국장과 함께 광주공원 일원에 남아 있는 일제 강점기 및 80년 5월 광주와 연관된 유적지 등 역사적 장소를 탐방할 예정이다.

탐방 코스는 광주공원 노인복지관 인근에 세워진 한말 삼남일 의병장 순절비를 거쳐 4·19 의거 희생영령 추모비, 어린이 현장탑, 친일인사 공덕비 단죄문, 민주화 운동에 목숨을 바친 류동운 열사 추모비, 5·18 사적비, 광주 신사계단 등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달구별
빛고을
소통 + 나눔 + 기쁨

달빛동맹 한마음 행사

달빛소나기

2021. 11. 26 Fri
광주 :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달빛소나기 광주지역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11월 24일까지)
대상 :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중시자 및 문화콘텐츠에 관심 많은 대학생 및 일반시민 (20~39세) 모집인원 : 선착순 50명
참가비 : 없음 (기념품증정) 참가방법 : 이메일접수 saup@kwangju.co.kr 문의 : 광주일보 문화사업국 062)220-0541

코로나19 극복
우리는
이겨낼수있어요

광주시민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주최·주관 **영남일보** **광주일보** 후원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